

# GRACE 선교소식

2025년 11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06명 (자체파송 78%)

##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지금 샌디에고에서 열린 한미 목회자 포럼 가운데 이 편지를 씁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일곱 가정의 목사님들과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다섯 가정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2026년 목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목회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포럼에 함께하신 목사님들은 한국과 미국 각지에서 건강하고 특징 있는 목회를 통해 지역

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장의 실제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제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담임으로 섬겼던 갈보리장로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다시 찾으니 마음이 참 벅칩니다. 당시에는 목회에 집중하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이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지금은 한결 더 선명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맑은 공기와 찬란한 바닷가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 같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GMI 선교영상을 함께 보고, 선교팀장 안영식 목사님께서 GMI 선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은혜교회의 선교사역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인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추수감사 특별 새벽 부흥회: 11/17-11/22
- GTD 210기 (여자): 11/30-12/3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녁에는 지도자 자질론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 미국

### 정OO / 전OO 선교사

미국은 10월에 힌두교 축제가 너무 많아서 곳곳에서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와 함께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우기철이 길어져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사역지에 있는 성도들의 집들과 교회 건물에도 비 피해를 입었고 저희 사역자가 하는 에어컨 기술센터도 올해에는 두 번이나 물에 침수되고 또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저희 사역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사 세미나

한달에 한번 열리는 교사 세미나에 지난 달부

터 교사 세미나를 남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북쪽에 위치한 사역자들을 나누어서 지역이 가까운 곳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두곳의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날짜에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 시범자로 세울 수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교사들을 통해 찬양과 복습 게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역자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 기도회

감사한 것은 한달에 두 세 번 철야 기도회와 가정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지 저희의 상황들은 얼마 전에 저희 사역지에서 한 시간 거리에 떨어진 장소에서 현지인들이 하는 가정교회가 힌두교인들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있



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교회들이 뭉쳐야 하고 미국 교단에도 가입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상황들을 빨리 공유하면서 사건 사후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가까운 가정교회와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들과 미국 교회 리더들에게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핍박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캄보디아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캄보디아는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철이어서 비가 올 때는 시원하고 오고 나서는 습하지만 늘 환경 적응에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캄보디아 태국의 접경 지역에 무력 충돌이 있었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충돌들이 있지만 평화롭게 캄보디아에서 지낼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범직 조직들이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 까지 납치, 감금, 폭행, 그리고 장기매매 등을 하기에 더욱 더 조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계획 가운데 창세기 성경필사였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유와 함께 캄보디아 언어를 읽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본인들의 언어를 가르쳐 읽게 하였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민수기를 쓰는 아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과 후 학습으로 캄보디아어,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과대학과 영문학 과에 입학한 2명의 리더 아이들에게 첫째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의 리더로서 수고하였기에 가방과 함께 학업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6월에는 바자회를 통해 동네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돋보기 안경으로 섬기면서 블랙그러빠은 은혜교회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에는 블랙그러빠은 은혜교회 아이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 온몸으로 신나게 찬양도 하고 가정교회 리더를 세워서 성경 나눔과 복음 팔찌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성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가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번 먹는 피자과 떡볶이도 먹으면서 하루종일 은혜와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중에 12학년 아이들 4명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떠났습니다. 아직도 우울증이 치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을 가는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의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업도 잘 하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아픔 속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전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10일 금식을 하였고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종전에 1층 건물의 성전을 계획하였으나 건물 부지문제로 좁지만 2층 건물을 계획하였고 10월 15일에 첫 삽을 뜨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자리가 바나나 밭이 있던 땅이 많이 물려서 약한 지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6미터짜리 콘크리트를 철심으로 땅 깊숙이 집어 넣어 foundation을 단단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랙그러빠은 은혜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 가운데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M국

유00 / 킨00 선교사

## 줄어든 내전, 귀향하는 피난민들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군부와 민주 또는 반군세력 간의 내전은 많은 곳이 휴전을 맺고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군부는 한번에 2000명씩 18번에 걸쳐서 군인들을 징집하고 세력을 키워 전국의 내전을 점차 잠재우고 강제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고향을 떠났던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수마을에도 몇 가정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몇년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고 농사지을 땅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겁니다.

## 남은 피난민들

많은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피난민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의 땅이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세'네는 어머니가 고향에서 교장선생님을 하면서 학교에서 살았지만 학교가 폭격으로 사라지고 돌아갈 곳이 없어 여전히 예수마을에 남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있는 공사 잡일을 하면서 두 아들(모세와 요한)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네는 아들이 똑똑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막내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운전기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에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운전 일자리를 번번히 잃게 되면서 지금은 여러가지 잡일들을 하면서 딸(너이췌이)과 아들(아이슈타인)을 키



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맛뚜'네는 원래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는 군인으로 징집되어 어찌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국은 군인으로 복무 중 전사하게 되면 원화 40만원 정도의 사망위로금과 시신을 인도 받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운전 일을 하셨는데 군인으로 징집되다보니 남은 가족이 살 길이 없어 누나는 다른 친척 집으로 보내고 현재는 아들과 둘이 예수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케냐는 소우기에 접어 들어 요즘 며칠 반가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괜히 한국의 가을이 생각나네요. 최근에 케냐의 몇몇 도시마다 강도떼가 휩쓸고 다녀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대사관에서도 납치 테러 관련 안전 공지를 보내와 불안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더욱 주님께 의뢰하며 의지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케냐의 초·중·고등학교는 방학이 시작되고 초 6, 중 3, 고 3의 전국고사 기간입니다. 올해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학교사역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 만 3세반 모집은 이미 7~8월에 마감되어 더 받아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학 전에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졸업식과 종업식을 했는데 올해 나이로비 전국 대회까지 올라간 스카우트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각 클럽별로 준비한 연극과 댄스, 시암송, 그리고 학년별로 성적우수상, 독서상, 요절암송상 시상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학년은 학부모들이 선물을 준비하여 한 해 동안 가르쳐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아프리카라고 결코 뒤지지 않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 은혜로 스쿨밴을 구입하였습니다. 방학동안 준비하여 내년 1월 새학기부터 운행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카고밴으로 사용하다 수입된 차량이라 내부에 좌석이 하나도 없고 창문도 없어서 다 만들어야 합니다. 좌석과 창문을 만들고 노란색으로 입히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도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교실 건축을 계속해 나가야 하며, 중고등학교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신학교는 지난 9월 세션까지 추가인원 모집하여 17기 36명, 18기 33명으로 총 69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전도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일반서신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매우 신선하고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현지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2주간 배우고 돌아갈 때마다 설교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 세션마다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교회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각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때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올해 세워진 8개의 교회들이 그 마을을 밝히는 진리등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물이 필요한 교회마다 빗물받이와 물탱크를 하나씩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관에 신청하고 땅속으로 파이프도 연결하여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건기에 는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 주는 것만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 계속해서 늘려가려 합니다.

## 베네수엘라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 콜롬비아 5기 목회자 사랑의 불꽃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콜롬비아 목회자 사랑의 불꽃 5기를 잘 마쳤습니다. 장준영 장로님께서 렉터로 섬겨주셨고, 한기홍 목사님을 스피치 리더로 모시고, 69명의 콜롬비아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팀멤버들이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 섬길 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랑의 불꽃을 통해 낙망되고 힘들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새 힘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 콜롬비아 신학교 1기 입학식과 첫 모임

그동안 사랑의 불꽃을 통해 알게 된 목회자들 중에서, 특별히 62명의 목사님들이 콜롬비아

신학교 1기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한 것은 그동안 콜롬비아의 아랑헬 형제가 부부가 열심히 건축한 콜롬비아 선교센터에서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헌신과 신실함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게 콜롬비아 선교센터 건축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6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 강당이 준비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며 왜 신학교 사역이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은혜 받아야 교회가 변화 받고 이 교회들과 함께 작게는 지역과 도시 그리고 한 나라를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콜롬비아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콜롬비아 선교센터가 필요한 숙소들이 더 건축되어 완성 되도록, 또한 내년 콜롬비아 신학교 강사와 통역과 앞으로 콜롬비아 사역을 위해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 6기 글로벌 리더십 스쿨 (ELG)

올해 6번째 글로벌 리더십스쿨 (ELG) 을 9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9월 합숙을 잘 마치고 10월 한달동안은 3곳의 도시로 나누어져서 대학 전도실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베네수엘라 선교센터에서 2차 합숙이 한 달간 시작됩니다.

합숙 기간에는 선교센터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생들과 같이 살며 훈련하는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 나라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어 결국 베네수엘라를 변혁시킬 줄 믿습니다.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해서 모든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 제주로의 이동과 새로운 시작

현재 이음이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며, 매주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로 섬유화된 조직이 제거되어 운동 범위는 회복되었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근육들이 수축되어 있고 골격에도 변형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교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끔은 스트레칭을 하기 싫어하며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해?”라고 묻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엄마 아빠랑은 다르게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반복되는 치료가 힘들어 생긴 작은 불평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 안에 위로와 평안을 심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길,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11월 18일에 제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CDTS 훈련을 앞두고 있지만, 조금 일찍 들어가려는 이유는 이음이의 재활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새로운 치료 기관을 미리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제주에 도착하면 토요일에도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찾아 직접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주중 외출이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치료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리치료사의 권고에 따라 수영이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으로 회복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병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록

과 주소 이전 등 새로운 생활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들도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처음 가는 환경에서 여러 부분을 새롭게 세워야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 CDTS 훈련을 준비하며

저희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CDTS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인터뷰를 진행했고, 21일에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때에 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현재는 간사님들과 매주 소통하며 사전 과제와 필요한 준비물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훈련이 가까워질수록 설렘과 함께 가족 모두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CDTS는 저희 가정이 앞으로 감당할 사역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YWAM의 사역철학과 공동체의 삶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훈련이 가라투 센터에서 진행되는 DTS를 더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부분에서 채워주시는 손길들을 보며 이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가라투 센터와 탄자니아를 위한 기도

최근 탄자니아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선 충돌이 발생했고, 인터넷이 차단되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지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가운데



에서도, 가라투 지역은 현재 비교적 평온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땅 전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혼란 중에도 교회와 사역자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며 지혜와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라투 센터의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든든히 서고, 모든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이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 위에서 저희의 걸음을 지켜보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며, 그 기도 하나하나가 선교 현장과 한국에서의 준비 과정 모두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여시고, 그분의 때에 다시 탄자니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자 하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 M국

곽OO / 엄OO 선교사

M국은 불교행사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스폰지 같은 상황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우상에 잠기게 하는 시내 퍼레이드를 하면 자연스럽게 절에 가서 시주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우상의 쇠사슬에 묶여 평생을 생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환경에서 자라며 우상에게 묶여있던 청년들을 모아 성경말씀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복음을 심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나누며 알게된 내용을 소그룹별로 성극으로 준비하는 회의와 연습 등의 과정을 통해 성경을 거부감없이 마음과 생각



에 심으며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 간증문

# Mongolia Grace Encounter 1기

이재상 집사 / G14

이번 몽골 인카운터 1기 선교를 통해 저는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나가는 것이고 제가 그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 안에 한 명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 동참하게 허락해주시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조인을 한 터라 꼭 이번 선교 동안 꼭 붙잡을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어 그레이스 타임을 매일 묵상하였고 저에게 큰 감동이 왔던 구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2:6-8)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 못 할 것이 없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제가 섬길 몽골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머나먼 몽골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은 20시간이 넘는 이동시간에 이어 쉬지 못하고 인카운터 준비를 하게 되어 정말 육체적으로 한계에 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번 선교에 총무를 맡으신 이한철 그룹장님(G27)께서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내서 선교하러 왔는데 우리가 준비한 건 다 하고 가야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씀에 다들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일을 하러 어떤 희생을 하며 왔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틀날 저희 모두는 어제 노고에 뿌듯함과 또 앞으로 변화받을 지체들을 떠올리며 캔디들을 맞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캔디데이트 분들은 심각한 표정에 저희의 서투른 몽골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많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인

카운터의 순서가 반쯤 지나가도 좀처럼 열리지 않는 캔디들의 반응에 많이 낙심이 되어 현지 목사님께 여쭙었습니다. “목사님, 캔디들이 표정이 너무 차갑고 인사도 잘 받아 주시지 않는데 다들 은혜를 받고 있는건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 몽골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이면 은혜 받고 있는거야.”

다음날이 되었고 또 저희는 저희들이 맡은 자리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섬기는 가운데 캔디들의 찬양 소리가 어제와는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세했지만 캔디들의 찬양은 어제보다 더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 첫날과는 다르게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며 둘째날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인카운터의 클라이맥스 시간인 기도 시간부터는 더 큰 사역의 열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캔디분들 중에서도 오른쪽 무릎 밑부터 다리를 절단하셔서 목발을 짚으시고 많이 차가워 보시고 무뚝뚝해 보이셨던 남자 캔디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셋업할 동안 기다려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구석에서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팀원들과 함께 목발을 짚고 의자를 세팅하는 모습은 캔디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것은 아닌가 걱정하던 저에게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과도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캔디분들의 걸 모습만 보고 이 선교를 주님이 보내시고 계획하셨는데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생각하며 잠깐이나마 의심을 하였는데 주님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몸이 불편한 성도님처럼 몽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기도시간에는 어떤 분은 방언을 받으시고, 또 어떤 지체들은 말 못할 중독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했고, 또 한명도 빠짐없이 모든 캔디들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는데 주님은 이런 캔디들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저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실수 없이 역사하실 것을 머리로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잠시나마 의심한 부족한 모습을 비추시며 제가 회개하게 하셨고 또 순종과 사랑과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어서 저에게도 큰 위로와 감동이 되



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뻐지만 사역이 남았기에 고삐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10시간 버스를 타고 서쪽의 치체를렉이라는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불교가 엄청나게 강한 도시로 원래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지만 사역자가 떠나는 바람에 현재는 교회가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현지의 사역자들과 교회 개척을 목표로 새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기동 역할을 할 제자들을 노방전도를 통해 만나길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변화가로 저녁 집회 초대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라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 마치 준비된 것처럼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초대 인원은 40-50명이었는데 도착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수를 세어보니 120명이나 되어 저희는 연회방 하나를 급하게 더 빌려 두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재령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영접기도를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에 모인 60명 가량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단 한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다녀오며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또 선교의 열매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몽골 땅에서 일으키실 복음의 용사들을 위해 그리고 1.5%의 기독교 전도율이 100%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구원의 의미

## -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지는 것 -

<1분단상 146-9월호>

- 김대규 장로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흔히 답한다. 그런데 구원은 사후의 삶뿐만이 아니다. 구원은 “이미” “아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런 점에서 구원은 현재진행형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형상이 죄로 인해 훼손되었기에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עִלְמִי, image)과 모양(דְמוּת, likeness)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고대 근동 당시에 형상의 의미는 반영, 반사, 대표, 아들권을 나타냈고 모양은 형태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는 구분한 것이 아니라 통틀어 표현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모양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형(archetype)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반영(reflection)이라는 뜻으로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반사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육체에 있지 않고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음을 말한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한 사람의 영광과 영예, 지배권을 언급하였고(8:5-8절) 사람은 하나님의 육체적인 대리인이었다(창1:26).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므로 이를 원의(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한다. 그러나 죄가 사람에게 들어

와 원의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훼손되었다. 이것이 원죄(Original Sin)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의로움, 진리를 상실하고 타락케 된 것이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에덴동산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 쫓겨난 죄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이 되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이다.

이를 믿는 자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온전한 인격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온전한 영혼, 완전한 육체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순종의 삶을 통하여 반사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구원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네가지 면에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한 칭의의 회복이요, 세 번째 삶을 통한 거룩의 회복, 네 번째 순종에 의한 말씀의 회복이다.

과연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는가? 이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구원을 이루었고,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다(골1:15, 빌2:6).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사랑, 공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칭의) 구원의 완성(영생)을 향한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롬6:22, 23)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하다. 이미 이 땅에는 도래한 하나님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는 바로 이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빌2:12). 이것이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오늘의 양식이다.



#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캄보디아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1.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도록
2. 블랙그립빠은 은혜교회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튼튼하게 세워지고 무사히 마치도록
3. 교회 리더 두명이 대학 생활 잘하고 리더로서 교회 열심히 섬기도록
4. 현지인 전도사(준세이하) 신대원 3학년 과정을 잘 마치고 후원자 연결
5. 3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리더들이 가정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되도록
6. 방과후 수업이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배워서 교회와 나라에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7.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 ▶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1.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2. 올해 건축된 8개의 교회 및 모든 GMI 산하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3. 새로 구입한 스쿨벤 좌석 창문 도색 잘 준비되도록
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내년 고등학교 건축을 위해
5. 신학교 운영 및 신학생들이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도록
6. 주원, 주이, 주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 ▶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제주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히 정착되고,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채워지도록
2. 토요일에 재활치료가 가능한 기관이 잘 연결되어, 이음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재활을 이어가며 건강과 균형을 회복하도록
3.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CDTS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모든 과정을 통해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깨닫도록
4. 탄자니아 가라투 센터의 사역과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 맺도록



## ▶ M국 유OO / 킨OO 선교사

1. 남은 피난민, 돌아간 피난민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2. 12월 28일에 있을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꾼이 뽑히기를
3. 새로운 사역(한국어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4. 유OO, 킨OO 선교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 ▶ I국 정OO / 전OO 선교사

1. 새롭게 편성된 교사 세미나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2. 하우라 교회 사역과 닐몰 고시 목사님의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3. 각 가정교회와 교회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임가운데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각 교회마다 핏박 속에서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도록
4. 저희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 선교현황 62개국 306명 (자체파송 78%) (2025년 10월 기준)

## 러시아 및 CIS [권역담당: 장영호 장로]

러시아: **센 삐페르부르크**: 조경호(명숙), **노보시빌스크**: 김경순, 이정식  
사할린: 김성웅(지수), **이르쿠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아),  
우울리스크: 장석희(약사나), **블라고베센스크**: 은성식(김경희)  
**아르메니아**: 백승환(올가) **키르기즈스탄**: 강형민(숙진)

## 동북 아시아 [권역담당: 원용경 장로]

한국: 고은희, 김광문(이용숙), 김영진, 김에스터, 최광(나미연), 이정호(이은주), 정태호(정은주), 황영수(정경련)  
중국: 김00(김00), 김00(김00), 이00(이00), 조00(윤00), 장00(김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한(김정희), 박두희(이선희)

## 동남 아시아 [권역담당: 류형수 장로]

베트남: 강00(범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김경수(서경란), 임진섭 (양윤희), 박경덕(신미선), 주진석(주경석) **라오스**: 신00(00), 정00(김00), 천00(이00), 황00(전00), 제00(박00), 유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손민지(이범신), 김길현(원경연), 박효순(이영희)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유인숙, 박성웅(미경) **미얀마**: 한00(김00), 곽00(엄00), 김00, 류00(킨000), 강00(이00), 김00(00), 전00(김00)

## 서남 아시아 [권역담당: 최운호 장로]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인도네시아**: 기00, 김00(김00), 한지영(김성용), 김태환(주애니)  
**파키스탄**: 정00(이00), 이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곽00(김00), 강00(현00)

## 아프리카 [권역담당: 백준승 장로]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씨에라리온**: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윤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여이주(최희정), 송규영(오효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조정석(남에스터),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 중동 [권역담당: 백준승 장로]

**이스라엘**: 김00(아00), 장00(최00), 이00(00), 최00(아00), 강00(000), 김00(조00), 지00, Chin00, 양00(00) **이라크**: 김00, 김00(00), 한00(00)  
**요르단**: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장00(서00), 김00(박00) **팔레스타인**: 정태훈(정소영) **중동**: 김000(00)

## 중남미 & 포어언어 [권역담당: 장준영 장로]

**아르헨티나**: 유성두(강지애), 스텔라김 **볼리비아**: 정은실(영자) **쿠바**, **칠레**: 안희진(구스타보)겸임 **쿠바**: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주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 겸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겸임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김도현(강미애)겸임 **멕시코**: 이종식, 김봉년(김미란), 송두선(양정연), 임한곤(이길선), 이준성(석화) **파라과이**: 강성현(이경희), 김돈수(미정) **모잠비크**: 하선(남성만)겸임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병순)

## 유럽 [권역담당: 권역석 장로]

**이태리**: 박상연(병희) **오스트리아**: Markus Obermayr **영국**: 조성문(김애자) **독일**: Vitali Gerner, Musa Galiew, Jonatan Krüger(장아이린), 오철희(이문희),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알바니아**: 오펜석(정미라)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몰도바**: 정석영 **튀르키예**: 김00(00), 공00(박00), 최00(이00), 김00(00), 전00, 이00(권00)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그리스**: 신동덕(신미희) **보스니아**: 신운영

## 북미주 [권역담당: 이상훈 장로]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강연),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준승, 박태수, 김정환

# 선교부 광고

###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알래스카 인카운터2기
- EM Israel Tres Dias #24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중동 권역 비전 트립 (11/16-11/26)**  
S/L: 안영식 목사  
리더: 백준승 장로  
문의: 이기환 전도사 (323-810-1886)
- **필리핀 태국 그레이스 캠프 (12/14-12/26)**  
S/L: 성은식 선교사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 **멕시코 노갈레스 인카운터 (1/18-1/23)**  
S/L: 이창기 목사  
디렉터: 김대규 장로  
문의: 전홍준 집사 (714-914-9980)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겸 집사 (714-337-3091)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